

영화 '탐정:리턴즈'로 돌아온 권 상 우

아기띠 메고 '아재 액션'
딱 내 스타일!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
나 같은 40대 유부남들이면 100% 공감
성동일 선배, 삶이 묻어나는 연기 존경

영화 '탐정:리턴즈'로 돌아온 배우 권상우. 코믹 탐정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는 "한때 영화계 아웃사이더가 된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영화와 연기를 즐기고 있다"고 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배우가 얼마만큼 자신의 캐릭터와 작품을 즐기고 있는지는 이런저런 설명 없이도 스크린을 통해 그대로 관객에 전달된다. 주위를 놀라게 할 만한 연기나 극적인 변신은 그리 중요치 않다. 지독한 노력형이나 타고난 천재형보다 연기하는 바로 그 순간을 즐기는 배우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이다.

13일 개봉하는 영화 '탐정:리턴즈'(감독 이연희·제작 크리픽처스)에서 권상우(42)가 딱 그렇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에 임하고 있는지는 굳이 부연할 필요 없이 스크린을 넘어 관객에 그대로 전해진다. 영화가 담은 이야기 자체도 유쾌하지만, 극중 권상우의 활약상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절로 웃음이 터진다.

● "40대 유부남이라면 전부 이해할 이야기"

개봉을 며칠 앞두고 만난 권상우는 자신 감에 차 보였다. 앞서 시사회를 통해 나오는 평가들이 긍정적인 까닭이다. 또한 탐정 시리즈의 주인공이란 입장에서도 만족감이 상당해 보였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에 보여주고 싶은 영화"라고 했다.

"첫째 아들 특회가 10살이 됐다. 영화 촬

영장에 와서 아빠가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지켜봤다. 아들이 가진 그 기억을, 멋진 아빠의 모습으로 남겨주고 싶다. 지금 와서 걱정될까 같은 영화를 찍고 '여보! 보러와' 그럴 수도 없지 않나. 육아로 지친 아내에게 선물처럼 주고 싶다."

권상우는 인터뷰 내내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부터 자신의 유년기 기억까지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이유는 아무래도 '탐정:리턴즈'의 영향인 듯 했다.

'탐정:리턴즈'는 2015년 개봉한 '탐정:더 비기닝'을 잇는 후속편. 상대적인 약체로 평가받은 1편은 유쾌한 탐정물이라는 평가와 입소문에 힘입어 262만 관객에 성공했고, 이번 2편을 통해 시리즈로 출발한다.

영화는 설록 흠츠를 꾸꾸지만 현실은 만화방 운영으로 생계를 꾸리는 강대만이 주인공이다.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빠이자 가족을 책임지는 남편이란 상황에 실제 권상우와 비슷하다. 1편에서 베테랑 형사(성동일)와 힘을 합해 의문의 살인사건을 해결한 용감한 시민 강대만은 이번 2편에선 아예 탐정사무소를 차린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아내에겐 차마 만화방을 접겠다는 사

실을 고백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육아도 챙겨야 하기에 아기띠 메고 현장을 누빈다.

권상우는 "40대 유부남이라면 다들 강대만을 이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도 두 아이의 아빠이고, 유부남인 42살 한국남자이다. 강대만과 비슷하지 뭐. 그 정도 남자라면 일단 가족을 지키고 싶고,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또 아내가 알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걸 알기에, 굳이 고백하지 못한 사소한 일은 거짓말로 얼버무린다."

몸 좋고 액션 연기도 탁월한 권상우이지만, '탐정' 시리즈에서는 다소 살찐 모습에 어떤 상황에서는 일단 몸부터 사리고 본다. 오래 단련한 근육질 몸매가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싶은 듯 허름한 웃으로 감추기도 여러 번. '귀여운 아재'같은 모습이다.

작품을 즐겼지만 영화 주인공으로서 멋 있어 보이고 싶은 욕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권상우는 "멋진 액션을 왜 보이고 싶지 않았겠느냐"면서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남자배우가 강대만 역할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현실론'을 꺼냈다. 그러면서 "아기 기저귀 갈고 아기띠 메고 뛰는 강대만이 나는 훨씬 더 매력적이다. 위안을 삼자면 '이

런 역할은 권상우 밖에 못한다'는 말을 한 번쯤 듣고 싶다"며 웃었다.

● 결혼 10주년... "가정도, 일도 안정된 것 같다"

권상우는 올해 결혼 10년을 맞았다. 배우 손태영과 슬하에 아들과 딸 하나씩을 둔 그는 연예계에서도 가정에 충실한 스타를 이야기할 때 첫 손에 꼽힌다.

"벌써 10년이다. 아직 집사람이 질리지 않는다. 아내도 나랑 같은 마음인지는 다시한 번 확인해봐야겠지만, 하하! 이전 가정도, 일도 안정되는 것 같다.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바라는 건 안전 하나 뿐이다. 집에서도 안전, 안전, 외치니까 아내가 그만 좀 하라고 말할 때도 있다. 그래도 아이들에겐 안전이 먼저다."

권상우에게 소중한 사람은 더 있다. '탐정' 시리즈를 가능케 한 파트너 성동일은 그에게 남다른 신뢰를 심어주는 선배이다. 두 사람은 영화에서는 물론 함께 여러 무대에 오를 때도 서로의 눈에서 '꿀'이 푹푹 떨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풍길 정도로 애정을 감추지 않는다. 권상우는 성동일을 향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린 시절 부친을 여윈 사연을 꺼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힘들었다. 중학교 이후론 불편함 없이 살았지만, 어릴 땐 너무 힘들어서 그 기억을 떠올리면 마치 월남전에 다녀온 기분이 이런 건가 싶다. 성인이 돼서도 어릴 때의 기억이나 습관을 잘 바꾸지 않는다. 선배님도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면에서 동질감이 있다."

권상우는 성동일에 관한 이야기는 쉽게 끊지 않았다.

"선배님은 그냥 웃음만 주는 배우가 아니다. 눈물을 쏙 빼놓기도 하고, 이 시대 아버지의 모습도 보인다. 살아온 삶의 색깔이 연기에 담겨 있다. 그런 면에서 존경한다."

배우라면 누구나 탐내지만 누구나 갖지 못하는 '시리즈 영화의 주연' 자리가 그에겐 각별한 의미이다.

"'탐정' 1편을 찍기 전 중국에서 3편의 작품을 연달아 했다. 그 뒤 '탐정'에 나설 땐 정말 마지막이란 마음이었다. 영화판에서 나만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단절된 기분이었다. 강대만을 보면 '즐기는 놈을 이길 사람은 없다'는 말이 떠오른다. 지금 내가 그렇다. 영화계에서 꼽히는 '연기의 신'들과 나를 비교할 수 없지만, 누구보다 즐기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씨씨씨' 임은숙, 암 투병 끝에 별세



임은숙

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그룹 씨씨씨 출신 임은숙이 4일 오전 사망했다. 향년 45세. 1월 '슈가맨2'에 출연해 유방암 4기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고인은 이날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당시 고인은 방송에서 "촬영 한달전 암세포가 간에 다발성으로 전이돼 출연 여부도 확실치 않았다. 팔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고, 마지막으로 멤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해 주위를 숙연케 했다. 빈소는 충남 홍성 추모공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장지는 홍성 추모공원이다. 6일 발인.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6위

방탄소년단 3집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가 미국 빌보드 앨범차트인 빌보드200 1위 자리를 1주일 만에 내줬다. 빌보드가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최신차트 예고기사에 따르면 '러브 유어셀프 전-티어'는 지난주보다 5계단 하락한 6위를 차지했다. 세계 10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캐나다 출신 팝스타 선 멘데스의 3집 '선 멘데스'가 정상에 올랐다. 멘데스는 2015년 1집 '핸드리튼', 2016년 2집 '일루미네이트'에 이어 이번에도 1위를 예약했다. 멘데스는 지난달 '2018 빌보드뮤직어워즈' 레드카펫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과 협업할 생각이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유빈 '저작권 논란' 앨범 발매 연기

원더걸스 출신 가수 유빈의 첫 싱글 수록곡이 저작권 논란으로 발매가 연기됐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4일 "4일 발표될 예정이던 유빈의 첫 솔로음반 '도시여자' 수록곡 '도시애'가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인지됐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곡은 발매가 연기됨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유빈이 원더걸스로 데뷔한지 11년 만에 처음 발표하는 솔로음반 '도시여자'의 타이틀곡은 '숙녀'이며, '도시애'는 이와 커플을 이루는 곡이다. '도시애' 발매가 연기되면서 '숙녀' 1곡만 이날 공개됐다. '숙녀'는 도회적이면서도 상쾌함이 넘치는 시티팝 장르로 도도한 도시여성을 표현했다.

송은이·정형돈, 음악프로듀서 변신

송은이와 정형돈이 새로운 웹 음악 예능프로그램 '스트리밍-개가수 프로듀서'를 통해 음악프로듀서로 변신한다. 이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4일 "두 사람은 6월 네이버TV와 V라이브에서 공개하는 '스트리밍-개가수 프로듀서'에서 음원 기획부터 공개까지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협업할 아티스트를 이달 중 공개하고, 서로 음원 경쟁도 할 예정이다. 송은이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비밀보장' '김생민의 영수증' '셀럽파워'에 이어 또 한번 콘텐츠 프로듀서로서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형돈은 '행운이와 대준이'로 활동한 대표적 '개가수(개그맨+가수)'로 꼽힌다.

한예리, 현충일 추념식 추모시 낭독



한예리

배우 한예리가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모시를 낭독한다. 4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예리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는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해인 수녀의 추모헌시 '우리 모두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를 낭송한다. 한예리는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추념식에는 한예리의 추모시 낭독 외에도 가수 알리가 서울시립합창단과 함께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을 수 있겠소'를 부르고, 국악인 왕기철은 국악공연을 선보인다.